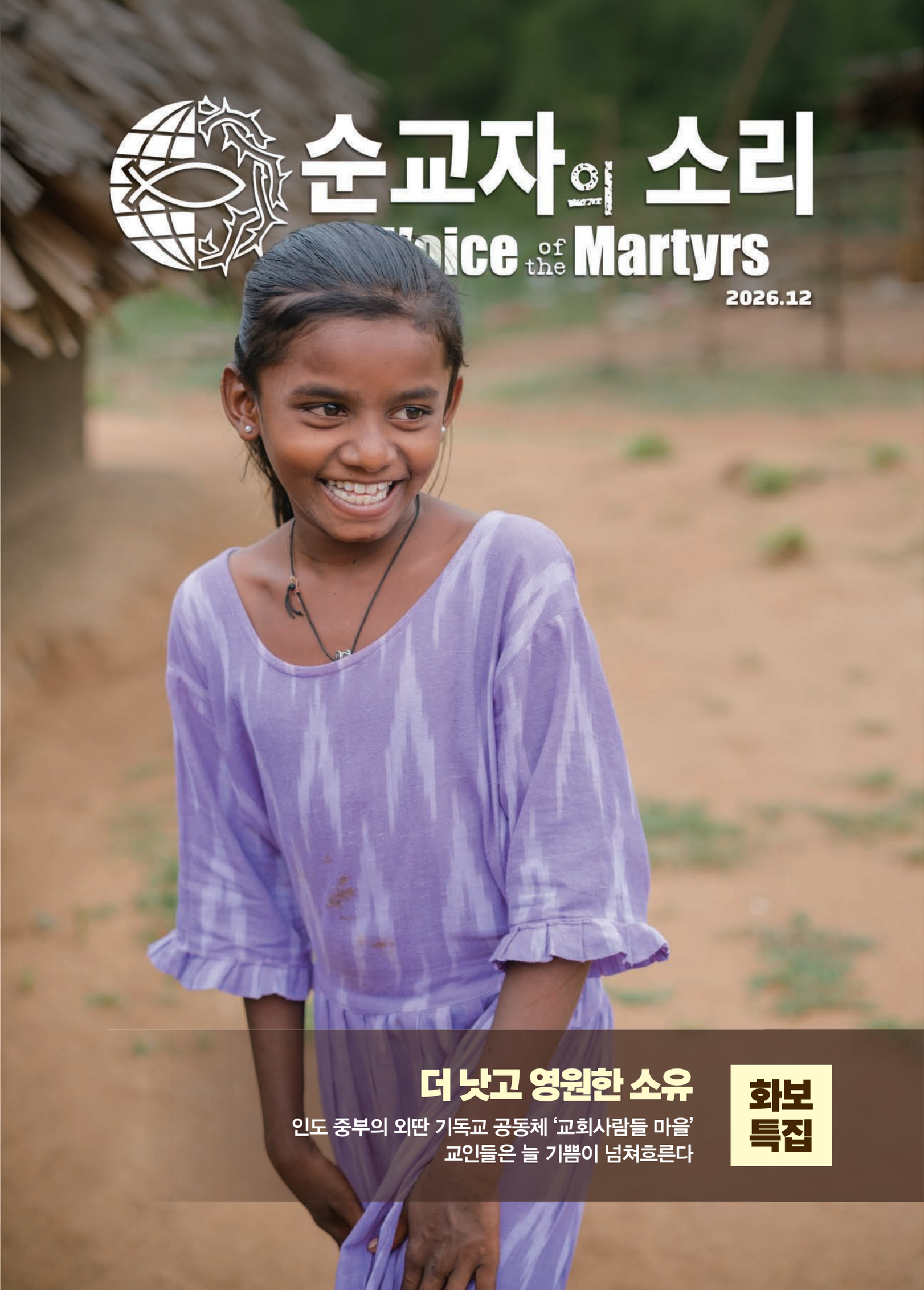
순교자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

2026.12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인도 중부의 외딴 기독교 공동체 '교회사람들 마을'
교인들은 늘 기쁨이 넘쳐흐른다

화보 특집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힌두교 급진파들, 종종 '힌두교 민족주의자Hindu nationalists'로 언급되는 이들은 2014년 5월 이후 10년 넘게 집권하고 있지만, 인도 밖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힌두교 국가'의 개념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신들을 거스르는 다른 신앙들을 제거함으로써 인도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기 또한 마찬가지로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인도 내 거주하는 약 3천 만 명의 기독교인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극심한 탄압과 폭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보면, 우리는 이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인도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증언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식지에 소개된 필립 목사의 가정과 수많은 교인들을 포함해 인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 가정이 오직 믿음 때문에 반복적으로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조국이 통일된 힌두교 인도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인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에게서 받은 가장 최근의 긴급 기도 요청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SCAN ME!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사람들 마을Church People Village'이라는 동네 이름은 인도의 중부 어느 외딴 정글 빈 터에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붙여진 것을 대충 번역해 부른 말이었다. 이 마을은 몇몇 가정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전부인 곳이다.

진흙과 지푸라기로 지어졌지만 깔끔하게 청소된 단칸방 예배당 건물 밖에서 필립Philip 목사가 마을의 장년 기독교인 10여 명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필립 목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하는 한편, 자신과 동료들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들을 쫓아냈던 지역 사회를 향해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지 기쁨으로 이야기했다.

필립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013년 다른 주에 거주할 당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많은 주에서 법과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잠재울 의도로 엄격한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골이나 정글 지역에서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힌두교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필립 목사의 동료 목회자 한 명은 2025년, 자신의 마을 반경 160km 이내에서 발생한 별개의 공격 사건들로 인해 기독교인 사역자 5명이 살해되었다고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들에게 전했다.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는 그 목회자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불과 4일 전에 발생한 일이었다.

필립 목사는 이러한 위협이야말로 인도의 많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치르는 대가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나그네

2013년, 필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곳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기를 원했다. 필립이 선택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지방의 '낙살라이트Naxalites' 지도자, 즉 마르크스주의자 반군 세력의 유력한 지도자였다. 곧 다른 이들도 뒤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새신자들은 힌두교 극단주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거래와 교류를 거부당했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식량 지원, 농기구 및 종자 등 부족 차원에서 베풀어야 할 혜택을 끊어버렸다. 2023년, 반대자들은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힌두교로 돌아가 마을에서의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마을을 떠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

일부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힌두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총 아홉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정글로 떠났다.

2026년
12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2	3	4
		북한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신앙 생활을 하도록	**모잠비크** 폭력적인 무슬림에게 공격당한 목회자들이 치유와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스리랑카** 현지 교회가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6	7	8	9	10	11
기니 이웃에게 학대당한 성도들이 핍박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 성도들이 주(州)의 개종금지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모리타니**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당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멕시코** 매주 수백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멕시코 남부의 전도 센터를 위해	**수단** 수단에 평안이 임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종식되도록	
13	14	15	16	17	18
이스라엘 성도들이 시위대와 기물 파손자들에게 복음과 은혜로 대응하기를	**이란** 많은 이란 사람이 방송을 포함한 기독교 매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몰디브** 복음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몰디브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카메룬** 보코하람의 공격에 가족, 집, 생계 수단을 잃은 기독교인 가정들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남
20	21	22	23	24	25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을 느끼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무거운 벌금과 법적 문제에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함에 감사	**차드** 12명이 살해된 교회 공격에서 살아남은 아쿠아와 성도들을 위해	**베네수엘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에 가득해지도록 (합 2:14)	**토고** 정령을 숭배하는 가족과 무슬림에게 배척당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정
27	28	29	30	31	
소말리아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쉬노와 샤니아를 위해	**에티오피아** 집과 교회를 잃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자를 용서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마다가스카르** 무슬림을 전도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성도들의 교회와 가족을 위해	**요르단**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이 요르단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도록	**몰디브** 무슬림 정부가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도록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4	5
	우크라이나 현지어로 펴낸 자료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격려와 도전을 받도록	콩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두 딸을 납치당한 기독교인 여성을 위해
	11	12
	바레인 현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핍박자들에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18	19
	네팔 예수님을 믿은 뒤로 남편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해 온 고마를 위해	서사하라 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25 성탄절	26
	르완다 정부에게 감시를 당할 때도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사우디아라비아 더 많은 사우디 국민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도록



핍박받는 29명의 인도 목회자에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스카Bhaskar 목사는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일곱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번은 공격을 당한 뒤, 6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이 그의 집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를 구타한 후 이틀 동안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스카르 목사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인도 오디샤Odisha 지역에 거주 중인 핍박받는 목회자 29명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 지원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과 핍박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친척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29명의 목회자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이나 교회, 혹은 그 모두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 몇몇은 아내와 딸들이 성추행, 심지어는 강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1명의 가정을
10만 원으로는 1개월 지원할 수 있고,
60만 원으로는 6개월 지원할 수 있고,
120만 원으로는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며,
360만 원으로는 목회자 3명의 가정 1년 생활비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인도'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인도'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정글에서의 예배

필립 목사는 그 아홉 가정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 한 기독교인 형제가 농작물을 심기 위해 개간하기 시작한 어느 정글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머물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다.

"우리가 마을을 떠난 주된 이유는 마을 지도자들이 교회를 파괴한 탓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원한 것은 예배드릴 곳이었으니,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필립 목사는 말했다.

고난과 역경의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정글에 온 목적,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다.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우리 모두 여전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행복합니다." 필립이 말했다. '교회사람들 마을'은 집도, 가재도구도, 위생 시설이나 전기조차 없이 정글 속에서 수많은 위험과 궁핍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곳에서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답니다." 필립 목사가 말했다.







변함없는 증인

'교회사람들 마을' 교인들은 여전히 인근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밤중에 이들을 찾아오곤 한다. 희망에 목말라 하면서, 혹은 이 기독교인들이 찾은 평화에 호기심을 품고서 말이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필립은 그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벌써 세 사람이 (은밀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라고 필립 목사는 말했다.

더 담대한 이들도 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가족의 일원인 조티(사진 속 파란 셔츠를 입고 팔짱을 낀 여성)는 자신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조티는 '교회사람들 마을'에 정기적으로, 당당하게 방문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데려오고 싶어 한다.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라고 조티는 말했다.

이 기독교인 추방자들의 마을에 스며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은 강력한 간증이 되어 왔다. 이들은 깨끗한 물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한다. 이들은 앞으로 또다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도의 거의 모든 마을에 힌두교 민족주의자 정보원들이 살면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은밀히 보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과 체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람들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인도의 다른 수많은 기독교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히 10:34)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



Gospel-Centered North Korea Ministry

복음 중심의 북한 사역

현숙 폴리 지음 | 에릭 폴리 협력

30,000원

|신|간|도|서|



『복음 중심의 북한 사역』

현숙 폴리 지음 | 에릭 폴리 협력 30,000원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목사 부부가 지난 26년간 섬겨 온 북한 지하교인 사역의 역사와 생생한 영상 및 사진을 담은 책.

이 실용적인 지침서를 통해, 왜 오늘이 북한에 복음 사역을 해야 할 때인지 알 수 있다.

인권, 인도적 지원, 구출이 아닌 '복음' 중심의 북한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면, 이 책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6가지 내용을 신구약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시된 '큰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지하신학교 참석자들의 피드백

예전 설교는 행위와 사람 중심의 설교였다. 듣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 복음을 6가지 주제로 한다면 무궁무진하게 설교할 수 있겠다. 목사님들에게 추천한다.

-포천 지하신학교 박○○ 목사

오랜 시간 복음을 연구해 왔지만, 비로소 복음을 향한 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다. *-대전 지하신학교, 정○○ 목사*

일정 및 문의

- 6개월 과정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월 1회 (1/30, 2/20, 3/27, 4/24, 5/29, 6/26)
- 훈련비 : 400,000원(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 사 :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 현숙 폴리 목사
- 장 소 : 순교자의 소리 서울 사무실 (서울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 신청방법 및 문의 : 02-2065-0703 / 010-3151-2065

2027 전 세계를 위한 기도 편람

판매 중 _ 10,000원







'새로운 기도 편람'을 통해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도서 주문을 원하시면 왼쪽 QR코드를 이용해 주세요.

"핍박받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탄절 선물 상자는 5만원으로는 1명의 어린이에게, 50만원으로는 10명의 어린이에게 성탄절 선물 상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사) 순교자의 소리